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Perfect Reading #4



안녕하세요, 쌤쌤입니다. ^^

오르비 클래스에

0+0+0 프리패스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고,

어떻게든 사랑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에

미뤄뒀던 칼럼을 부랴부랴 씁니다.

직역에서 코어까지 한 문장 독해의 모든 것,

Perfect Reading, 네 번째 시간입니다.

3월 학평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쉬운 영어로의 변화'가 확인되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쉬운 영어'라는 기초가 남의 일처럼 들리기만 하고,

오히려, 더욱 상실감만 커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상대평가'라는 틀 속에서,

중위권 학생들에게 '쉬운 영어'는 그저 그림의 떡일 것입니다.

영어에서 중위권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말해서,

'해석을 못해서'입니다.

영어는 의사소통의 도구, 즉, 하나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하면,

그것이 정말 무슨 뜻인가를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영어 지문을 읽으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직역'이라는 것을 합니다.

즉, 영어의 문장과 우리말 문장을 거의 1:1 대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옮겨놓은 우리말 문장이

마치 남의 나라 말처럼 걸돌기만 할 뿐,

친구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뜻이 내게 오듯,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Perfect Reading #4

그렇게 그 문장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핵', 즉, '코어'입니다.

이 코어를 잡아야,

지문의 주제가 완전히 잡힌 것이며,

그랬을 때, 이 지문이 어떤 유형의 문제로 변해있든,

그 답을 흔들림 없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장은 별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코어가 잡힐 수 있지만,

조금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용어들이 사용되면,

코어를 잡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의식적인 노력'을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Perfect Reading입니다.

또한,

이 문장의 의미를 되새기며, 완전히 쓸 수 있게 하는 것,

한 번씩 의미를 되새기며 써 볼 때마다,

영어실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는 문장을 왜 쓰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을 연습하고 또 연습할수록,

문장이 마스터되어 갈수록, 없던 여유가 생기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더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길수록, 더욱 더 영어가 '언어'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곧

Perfect Reading의 인강 버전이 시작됩니다.

인강에서는 칼럼에서 다루는 문장들을 포함해서

100개의 문장을 선정해,

그것을 완벽하게 코어까지 해석해내고,

그것에 사용되는 기술을 연마합니다.

그리고 그 100개의 문장을 Build-up과 오디오 파일을 통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Perfect Reading #4



해석은 되는데 겉도는 느낌이다

해석은 되는데 정답을 못맞힌다

이런 것들은 모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지문의 핵심, 즉, 코어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을 바로 잡고

확실히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바라는 친구들은

많은 관심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글의 진행은 마치 강의를 하듯, 제 의식의 흐름을 따라 썼구요.

죄송하지만, 편의상 빠른 호흡을 위해 경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Perfect Reading #4

오늘의 문장

When the inventor generates initial invention designs, he often constrains the form of the invention through implicit analogies to components of nature or existing products whose function matches or approximates that of the intended invention.

문장 해석

해석은 언제나 다음의 원칙대로 한다.

물론, 이것은 해석 연습의 원칙이다.

실전시에는 이것이 본인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재탄생되면 된다.

- ① 앞에서부터 뒤로 한 방향으로 나가며, 되돌아오지 않는다.
- ②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지나간 부분을 잊지 않도록 집중하고, 기억력을 훈련한다.
- ③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
- ④ 자신을 이해시키는 해석이 가장 좋은 해석이다.

자, 그럼 해석을 시작해보자.

When

언제나면

the inventor

그 발명가가

:'그 발명가'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뜻을 말한 것이지 해석을 한 것이 아니다. 주어면 주어답게 그 해석을 부여해줘야 자연스럽게 언어가 붙는다.

generates

발생시킬 때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Perfect Reading #4



; 현재형 본동사이므로 '발생시킨다'이지만, 앞에 있는 접속사 when의 마무리 의미인 '~때'를 동사에 붙여준다. 그래야 이후의 절과 연결이 부드럽다. 즉, '언제나면 ~ 발생시킬 때'라고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항상 접속사가 나오면 그 접속사의 시작 의미를 말하고, 동사에 그 접속사의 마무리 의미를 붙여준다.

ex) If you study hard, ~~ : 만약/ 네가/ 공부한다면/ 열심히

이 문장에서도 접속사 if의 시작의미인 '만약'을 뱉어주고, 동사 study에 '~한다면'의 의미를 붙여준다.

initial invention designs

처음의 발명품 디자인들을

;하나의 명사구는 하나로 끊는다. 목적어이니 목적어답게 해석을 붙여준다. 또한, 영어인 채로 그 의미가 와닿는데 우리말로 옮기는게 더 힘들다면,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 designs와 같은 단어들도 마찬가지다. 그냥 '디자인'이라고 한다. '자신을 이해시키는 해석'이 가장 좋은 해석이다.

he

그는

often constrains

종종 제한한다

the form

그 형태를

of the invention

그 발명품의

;전치사구는 항상 하나로 끊는다.

through implicit analogies

내재적인 유사점들을 통해

to components

구성물들과의

; 전치사 to 는 앞의 analogies와 같이 '비슷하다'는 계통의 말들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비교대상이 되면서 '~와'의 의미가 된다.

ex) A is similar to B: A가/ 비슷하다/ B와

of nature

자연의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Perfect Reading #4



or

혹은

existing products

기존의 제품들과의

;병렬의 접속사인 or 이후에 있으므로, 이것이 누구와 병렬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to components와 병렬이므로, 전치사 to의 의미를 똑같이 붙여주었다.

whose function

뭐냐면 그것의 기능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의 해석은 관계사이니

① '뭐냐면'이라는 신호를 걸고,

② 소유격의 의미를 살려서 '그것의/그의'라고 해준 후

③ 반드시 뒤에 온 명사와 붙여서 해석해준다. 이 때, 뒤에 온 명사가 주어이면 주어답게 해석해주고, 목적어면 목적어답게 해석해준다.

ex) I like the book whose cover is yellow. 나는/ 좋아한다/ 그 책을/ 뭐냐면 그것의 표지가/ 노란색인.

I like the book whose cover my brother tore. 나는/ 좋아한다/ 그 책을/ 뭐냐면 그것의 표지를/ 내 형제가/ 찢었던.

matches or approximates

똑같은 혹은 근접하는

;접속사의 마무리 의미를 동사에 붙여주듯이, 관계사의 마무리 의미를 동사에 붙인다. 즉, 관계사절은 '수식'의 역할이므로 동사를 '수식'의 의미로 마무리 해준다. 똑같다 → 똑같은

that

그것에

;동사 approximate는 S approximate O로 사용할 때, S가/ 근접하다/ O에 라고 해석하므로, O인 that을 approximate의 목적어답게 '그것에'라고 했다.

of the intended invention

그 의도된 발명품의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Perfect Reading #4



이제 다음의 끊어진 단위를 보고 거기에 맞춰 해석해본다.

When/ the inventor/ generates/ initial invention designs, he/ often constrains/ the form/ of the invention/ through implicit analogies/ to components/ of nature/ or/ existing products/ whose function/ matches or approximates/ that/ of the intended invention.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끊어진 단위를 보고 맞춰 해석해본다.

When/ the inventor/ generates/ initial invention designs, he/ often constrains/ the form/ of the invention/ through implicit analogies/ to components/ of nature/ or/ existing products/ whose function/ matches or approximates/ that/ of the intended invention.

몇 번이고, 의미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해석해본다.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Perfect Reading #4



의미추출

When the inventor generates initial invention designs, he often constrains the form of the invention through implicit analogies to components of nature or existing products whose function matches or approximates that of the intended invention.

When the inventor generates initial invention designs,

‘발명가가 처음의 발명품 디자인들을 발생시킨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과는 괴리가 있는 말이다.
자신을 이해시키는 해석으로 바꿔라.
‘발명가가 처음에 발명품을 디자인 할 때’
이렇게 바꿨을 때, 의미가 다가오는 ‘포근함’은 차원이 다르다.
이런 것을 ‘번역체’라고 하는데,
프로 번역가들은 결국 ‘번역체’를 얼마나
의미의 손상없이 자연스러운 말로 바꿀 수 있는가에 의해
그 역량을 평가 받는다.

그러니 that절 속에서는 그 모순을 설명해야 할 것이고,
문장 전체의 큰 그림은 결국
‘Internet 시대가 가진 모순: ~~~~’이 될 것이다.

he often constrains the form of the invention

역시 ‘딱딱한 말’을 자신을 이해시키는 말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그 발명가는 그 발명품의 형태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제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줄인다’는 것이다.
즉, 처음에 발명품을 디자인 할 때,
그 ‘형태’를 뭇로 할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 경우의 수를 줄인다는 것이다.

through implicit analogies to components of nature or existing products

먼저 어려운 단어를 풀어보자.

implicit analogies : 내재적 유사성들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Perfect Reading #4



‘내재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반대말은 explicit이다.

ex- 는 바깥을 뜻하고

in-은 안을 뜻한다.

그런데, in + plicit 에서 보통 in이 p를 만나면 im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ex) import: 수입하다 in + port (항구 안으로)

그러니, implicit이 말하는 내재적이란, 결국 ‘속에 있다’는 것이며

반대말은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니, 종합해보면,

implicit analogies는 겉으로 드러나는 유사점이 아니라 속에 숨어있는 유사점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럼, 이제 말을 붙여보자.

발명가가 처음에 발명품을 디자인 할 때, 그 사람은 그 ‘형태’를 정하는데(줄이는데), 뭘 통해서 정하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사점을 통해서 그 형태를 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남은 것은 바로 ‘유사점’이다.

유사점이라면 당연히 ‘~와의 유사점’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기서 얘기한 것은

‘자연의 구성물 혹은 기존 제품’과의 유사점들이다.

즉, 발명가가 발명품의 ‘형태’를 정할 때는, 자연에 있는 것들이나 기존에 있는 제품들과의 비슷한 점을 통해 그 형태를 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비슷한 점들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비슷한 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유사점과 드러나지 않는 유사점은 무엇일까?

그렇다.

겉으로 드러나는 유사점이라면, 당연히 ‘겉모습’의 유사점일 것이다.

그러면,

이상한 점이 생겼다!

발명가가 ‘형태’를 디자인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의 ‘형태’가 아닌 유사점들을 따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따라 디자인하는 것일까’라는 물음이 나와야 하고

이것이 바로

이 문장의 코어인 것이다!!!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Perfect Reading #4



이제 우리의 관심은

발명가가 대체 무엇을 따라 디자인하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whose function matches or approximates that of the intended invention

남은 힌트는 이제 이것 뿐이다.

기존의 것들과의 유사점을 통해 디자인한다고 했는데,

그 기존의 것들이란, 그 '기능'이 의도한 발명품의 '그것'과 일치하거나

'그것'에 거의 근접하는 것들이라고 한다.

먼저 대명사 'that'을 알아야 한다.

that은 function을 뜻하므로,

의도된 발명품, 즉, 지금 만들고자 하는 발명품의 기능과 일치하는 혹은

거의 근접하는 기능을 가진 기존의 것들과의 내적 유사함을 통해

디자인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적 유사함이라는 것,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사함이라는 것의 정체도 드러났다.

이 문장 안에는

form이라는 말과 function이라는 말이 있으며, implicit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implicit은 explicit과 대응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form은 explicit / function은 implicit 한 것이 될 것이다.

즉,

발명가가 발명품의 '형태'를 정하는데,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것들과의 비교를

통해 정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것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떠올릴 수 있다면,

이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다.

누군가가 처음 비행기를 만들면서 아직 그 형태를 안 정했다고 치자.

이 경우를 위의 문장과 적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먼저 생각해본 후에 밑에 붙 것!)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Perfect Reading #4



그렇다.

처음 비행기를 만들며, 그 형태를 결정할 때,

이미 자연에 있는 것 중

그 기능이 비슷한 것을 따라 만들테니

그 기능이 비슷한 것이란 결국

날아다니는 것을 말하며,

결국 그 모양을 새의 날개 모양과 흡사하게 만들 것이다.

여기까지를 떠올렸다면

이것이

독해의 완성이다!!!

이 문장의 의미 파악에서 사용했던 의미 파악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 ① 딱딱하고 어려운 단어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것.
- ② 문장 안에 있는 어휘의 반대말을 떠올려 그 의미를 확실히 정하는 것.
- ③ 추상적인 내용의 구체적 예시를 찾아내려 할 것.

이제 이 문장을 Build-up을 통해 완전히 내것으로 체화한다.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Perfect Reading #4



Build-up

언제냐면/ 그 발명가가/ 발생시킬 때/ 처음의 발명품 디자인들을, 그는/ 제한한다/ 그 형태를/
그 발명품의/ 내재적 유사점들을 통해/ 구성물들과의/ 자연의/ 혹은/ 기존의 제품들과의/ 뭐냐면
그것의 기능이/ 일치하는 혹은 근접하는/ 그것에/ 그 의도된 발명품의.

Build-up은 외우는 것이 아니다.

많이 생각하며, 많이 쓰는 것이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면서

자연스레 영어의 어순과

각 문장성분의 '약속된 해석법'을 익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보편적인 문장'들의 해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첨부한 연습지에 완전히 맞춰서 써본다.

이후에는 아예, 연습지가 없는 곳에 문장을 기억해서 써본다.

이때, 무조건 영어를 외워쓰지 말고,

우리말을 기억해놓고, 그 말을 떠올리며, 영작(build-up)을 한다.

우리말을 기억할 때에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뒷말을 자꾸 유추해내려고 노력한다.

뒷말 꼬리물기

언제냐면 - 그 발명가가(뭐할 때?) - 발생시킬 때(뭘?) - 처음의 발명품 디자인들을, 그는 -
제한한다(뭘?) - 그 형태를(무슨 형태?) - 그 발명품의(어떻게?) - 내재적 유사점들을 통해(뭘
와의 유사점?) - 구성물들과의(무슨 구성물?) - 자연의 - 혹은 - 기존의 제품들(무슨 제품들?) -
뭐냐면 그것의 기능이 - 일치하거나 근접하는(뭘랑 일치하고, 뭘에 근접하는데?) - 그것에(그게
뭔데?) - 그 의도된 발명품의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